



북스데이 서비스 오픈한 (주)타임비 최신 솔루션으로 전자책 블루오션 동행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책 출판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문 작가들을 비롯한 능력 있는 아마추어 개인 작가들의 전자책 출판 및 제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출판, 출판유통, IT 등 관련 분야 많은 업체들도 전자출판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책 출판 서비스 전문 회사 (주)타임비(대표이사 조규영)가 최근 이펍(ePub) 파일 및 앱북 제작을 대행하는 ‘북스데이(www.booksday.net)’ 서비스를 선보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텍스트 및 이미지 자료를 국제전자책 표준규격인 이펍 파일로 제작해, 이 파일을 다시 전자책 전용기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터넷 서점(도서관)에 등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등록하는 형태로 출판하게 된다. 이때 전자책 출판 환경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특성을 살리고,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전자책 제작이 쉽지 않아 전자책 활성화에 주요한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역량 있는 전자책 제작사들이 저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다양한 기능과 독자 편의성을 지원하는 전자책 출판을 비롯해 독자적인 전자책 출판 생태계까지 구성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들과 차별화되고 있다.



1. 타임비 e-book의 디스플레이 모습
2. 북스데이홈페이지
3. 북스데이의 솔루션, 좌측부터 싱글북, 멀티북, 앱북마켓

싱글북·멀티북·앱북마켓 형태로 서비스

타임비가 최근에 선보인 북스데이는 개인 아마추어 작가들의 이펍 파일 및 IOS용 유니버설 앱북(아이폰, 아이패드) 제작, 그 책의 유통 대행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출판사와 기업, 기관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앱북 배포 솔루션까지 포괄한다. 북스데이의 앱북 솔루션은 싱글북과 멀티북, 앱북마켓 등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싱글북은 종이책의 단행본처럼 독립적인 형태로 전자 출판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멀티북(세트, 전집류 등)은 기존의 출판사나 기업 등이 출판한 다수의 책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아 배포할 수 있는 형태이며, 앱북마켓 솔루션은 멀티북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애플리케이션 내부 판매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출판사 또는 작가가 지속적으로 전자책을 발행·판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개인 작가 아이폰 앱북·이펍 파일 무료 제작

북스데이는 서비스 런칭 기념으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KOSA)와 업무 제휴를 통해 KOSA 회원에게 무료 앱북 제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KOSA 홈페이지를 통해 북스데이에 방문해 회원가입 및 인증 후 앱북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KOSA 회원 확인을 거쳐 앱북 제작 및 이펍파일 변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작된 이펍 파일과 앱북은 인터넷교보, 예스24, 애플 앱스토어, SKT T-store, KT Olleh 마켓 등을 통해 배포되며, 판매에 따른 수익은 일정 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한 타임비는 개인 작가 또는 책이름 등을 독립적인 책의 형태인 아이폰 앱북 및 이펍 파일 형태로 무료 제작해 주고 있다. 아울러 출판사, 기관, 단체를 위한 앱북 솔루션(싱글북, 멀티북, 스토어)도 특가에 공급한다.

북스데이 통해 전자 출판 발전 일조

조규영 타임비 대표이사는 “전통적인 종이책 산업은 소수 전문작가의 글을 도서제작업체인 출판사가 기획, 인쇄 후 유통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서점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전자책은 도서유통과 판매가 하나의 단계로 합쳐졌으며, 출판사의 역할도 개인 다수가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고 밝힌 후 “전자책은 수많은 장점이 있다. 20~45% 정도의 낮은 가격에서 유통되며, 24시간 동안 자신의 선호에 맞는 북 쇼핑이 가능하다. 책을 읽는 동안에도 무한 메모가 가능하며, 두 책을 동시에 읽을 수도 있다. 주석이나 강조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지울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정보검색, 구독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다.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사항이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휴대도 용이하다”라며 전자책의 수많은 장점에 의해 향후에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스데이 서비스 오픈과 관련해 “전자 출판의 기능성이 확대되는 만큼 북스데이 서비스가 기존의 작가는 물론 능력 있는 개인 아마추어 작가의 전자 출판 노력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